

“도시-농촌 함께 잘살자” 사찰 도농공동체 매장 운영

운동본부 7월 발족... 봉은사·능인선원·조계사 등 개설

사찰의 도농공동체매장(생활협동조합매장) 설립을 통한 불교도농공동체 운동이 본격화 된다. 인간과 자연을, 도시와 농촌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잇기 위해 지난 4월 수도권 지역 23개 사찰과 단체로 결성된 불교도농공동체 준비위원회(위원장 원혜스님)가 오는 6월 말 봉은사의 도농공동체 매장 개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도농공동체매장 개설은 상생하는 삶을 위한 생명공동체운동의 일환”이라 말하는 원혜스님은 “봉은사 신도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도 도농공동체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참여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농공동체준비위는 이미 지난 3월 30일~4월 18일 능인선원, 봉은사, 조계사, 수원포교당, 영화사 등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에 적극적인 5개 사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생협학교를 열었다. 생협학교 교육은 마친 5개 사찰의 실무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특별 판매를 기획, 지리산 실상사, 남농영농조합 등 전국 9개 생산지에서 가져온 나물류, 잡곡류, 유기류 등 110가지 무공해 제품을 5월 15일~22일까지 판매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도농공동체준비위는 지난 1일 봉은사에서 도농공동체매장협의회

(회장 유억근)를 구성해 각 사찰의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을 위한 교육, 홍보, 물류유통, 판매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농공동체매장은 기존 생활협동조합매장의 다른표현으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함께 발전한다는 생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계획에는 지난 95년 교계 최초로 개설된 부천 석왕사의 생활협동조합을 비롯 덕유사회복지관산하 덕유복지생활협동조합, 강남포교당 생협협동조합, 영화사 한마을 유기농산물판매장 등이 운영중이다.

도농공동체준비위 이정호 사무국장은 “봉은사를 시작으로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조계사, 영화사 등



5월 17일~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유기농산물 특별판매 현장. 불자들의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에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사찰과 단체로 도농공동체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한 석왕사, 강남포교당 등 기존의 사찰생협과의 연계방안도 점차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제2차 생협학교를 준비 중인 도농공동체준비위는 이같은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2일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로 정식 발족하게 된다.

수입농축산물의 오염 등 생명위기가, 생태위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은 이벤트성 환경운동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호흡을 살려내고, 건강한 먹거리를 살려내는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각종 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02)723-1884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⑧



김지건

(전통불교연구원장)

5월말 잠시 귀국했던 김지건 박사(불교학)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 신사동 무불선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박사는 1시간을 넘게 열변을 토해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수개월전 일본으로 출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김박사가 이렇게까지 건강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에서 바쁜 학술교류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스로 개발해 실천해 온 건강비법 때문이다. 김박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비법은 세 가지. ‘아침 식사는 최대한 줄이고’, ‘걸기를 마다하지 않고’, ‘숨을 쉴 때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다.

“아침식사 간단하게... 많이 걷자” 호흡 관하며 항상 맑은정신 유지

익은 음식을 최대한 줄인 김박사의 아침 식단은 매우 특이하다. 밥·대추·고구마·당근 등이 주메뉴로 오른다. 김박사는 “화식을 한끼라도 피하는 것은, 몸의 ‘탐식(貪食)’과 마음의 탐심(貪心)을 절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탐(貪)’이 바로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라고 설명했다.

또 김박사는 가능하면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걷기에 열중하는 데에는 나이들수록 ‘유산소 운동’이 절실하다는 의학적 견해에서 비롯했지만, 최근에는 걸으며 호흡을 관(觀)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걷는 것은 쯤제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생명의 등불 즉, 불성을 밝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관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김박사가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비법은 결국 ‘맑은 마음’의 유지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요양을 위해 산사를 찾아온 요양객에게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하산을 종용했던 한 노선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김지건 박사의 건강한 얼굴에서 노학자의 ‘맑은 마음’이 느껴진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불교방송 발전기획단 떴다

재정 확보·광고유치 방안 연구 석달간 한시 운영...백서도 펴내

2000년 개국 10주년을 앞둔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이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섰다.

불교방송은 사내 6개팀에서 뽑은 11명으로 구성된 ‘불교방송 발전연구기획단(단장 홍준기)’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주1회 회의를 갖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3개월뒤에는 10여차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보고서 형식의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3월 열린 회의에서는 불교방송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방송제작 및 기술, 재정 확보 및 사업, 후원회 활성화, 방송 포교, 광고 유치 방안 등 방송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21세기를 맞이해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수립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정 수입의 주축을 이뤘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하반기에 폐지될 경우 불교방송의 재정 독립을 위해 선결해야 할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통일한국 대불련 역할 찾는다

7월 28일~8월 2일 '1600년대회'...강연·음악회·문화공연

신 대승불교운동에 뜻을 같이 해 온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대항연 한국불교 1600년대회가 열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 이하 대불련)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서울에서(장소 미정) 제18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한다.

대불련은 ‘하나에서 칠천 만으로 이어가는 통일세상! 청년불자들이 함께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대불련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 1600년 대회는 △7월29일 오후 6시30분 입학식에 이어 각 지부의 문화공연과 각 회원간 상견례 △7월30일 오리엔테이션, 굴렁쇠돌리기 남북한 전래놀이 등 청년불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통일강연 및 비디오 상영 △7월31일 임진각 통일기원대회, 통일

동산 순례, 통일음악회 △8월1일 신대승불교운동에 대한 강의, 대불련 후원의 밤, 대불련 가요제 및 대중제 △8월2일 지하포살, 율령 및 회향식, 뒤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불련 가요제와 대중제는 청년불자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다지고 기쁨을 발산하는 자리로 마련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선사들의 선시 노래에 담았어요”

방송인 이근찬 음반 출시

불교방송에서 ‘퀴즈대장’을 진행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자 가수 이근찬씨가 역대 고승들의 선시를 번안해 부른 노래를 음반에 담았다.

타이틀곡인 ‘보게나’를 비롯 ‘부처와 나’ ‘화두’ 등 10곡이 수록돼 있다. 또 같은 노래를 양악과 국악이 멋진 조화를 이룬 섬세하고 감미로운 반주에 맞춰 시로 낭송한 것도 함께 들어 있다.

차분한 리듬과 고승들의 감로법문

李根贊
Lee Keun Chan

이 배어 나는 가사가 어루러진 악곡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음료 같이 시원하고 편안함을 선사해 준다. 학명선사, 서산대사 등의 선시를 석정스님이 번안하고 국악 작곡가 유성민씨가 곡을 썼다.

단신

20일 길상사 알뜰시장

맑고향기롭게(회주 범경)가 아나바다정신에 입각해 세상과 자연을 맑고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제9회 알뜰시장을 20일 서울 길상사 앞뜰에서 연다. 알뜰시장에는 의류, 도서, 생활용품, 신토불이 먹거리, 사찰전통음식, 무공해 세제 등이 판매된다. 매 짝수일마다 열리는 알뜰시장의 수익금의 일부는 이 곳을 위해 쓰여진다. (02)741-4697

‘가정과 이혼관’ 세미나

MF불교실성시대 각종종교인이 본 가정관과 이혼관 학술세미나가 1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천리교 등 5개종교의 대표자들이 각종교의 가정관과 이혼관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부부는 법사종 승순경총무원장이 발표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연수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정호스님)는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26일~27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연다. 선체조, 레크리에이션 댄스, 선체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38-7860

풍경소리 찬불동요 8집 창작곡 17곡 수록

좋은벗 풍경소리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제8집을 발매했다.

이번 제8집에는 ‘탐돌이’, ‘개구장이 스님’, ‘연등밝히는 날’ ‘석탑위의 가을빈가’ 등 불교적 정서를 가득담은 17곡의 동요가 담겨있다. (02)2242-2567

청년불자 자아의 등불 밝혀보자

정토회·능인선원등 교양강좌 청년불자들을 위한 불교교양 강좌가 속속 열리고 있다.

100일 정진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진행중인 정토회(지도법사 범봉)는 19일 오후 3시 서울대 장외리 교수(물리학과)를 초청해 ‘연관과 상호의존의 우주적 깨달음’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청년불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한다. 또 20일 오전 11시에는 ‘현실 속의 수행과 수행의 현실화’에 대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강연이 이어진다. (02)587-8994

능인선원(원장 지광)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년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청년아카데미는 한국불교 사상의 흐름(교명 섭 교수), 현대사회와 불교(최봉수 교수), 종교와 불교(송위지 교수), 참선수행(명선스님), ‘공부보다 재미있는 놀이’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 (02)577-5800

또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7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기초교리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불자로서의 삶’ 등에 대한 주제로 3개월간 열린다. (02)730-9108

도필선 기자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이다.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畫數 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正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구임.

총판대리점 **범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국내 성지순례 회원모집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불자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추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지순례 행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제1차로 불교문화 역사의 고장인 경주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서암(전 조계종 종정)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국내 제일의 약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 원천으로 유명한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며, 특히 이곳에 여성의 피부미용은 물론 혈액순환, 산성체질개선, 동 성인병에 놀라운 효험이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중, 피부병은 3회 정도만 목욕해도 효과가 극명 나타날 정도의 욕탕 온천수입니다.

경주온천관광호텔 뒷편 큰 연못에는 우거진 송림과 연꽃이 피는 산책코스로서 연산홍 꽃밭에서 추억의 사진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 정: 1999년6월26일(토) - 6월27일(일) 1박2일
- 순례코스: 대구동화사·약사대불 - 경주온천관광호텔 숙박 - 온천 사우나 - 석굴암 새벽예불·해돋이 - 경주남산 운문사(서암 큰스님 친견법회)
- 참가비: 80,000원(호텔4인실, 2식 제공)
- 모집인원: 45명(선착순)
- 접수마감: 6월 22일(화) 17:00까지
- 출발시간 및 장소: 6월26일(토) 오전 07:30 조계사(신한은행 건너편)
-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중구 정동15-5 정동빌딩 16층(서울사무소) 전화 02)777-2049, 019-265-5593 팩스 02)756-3696
- 온라인: 농협 476-12-326786 (예금주:이인섭) 국민 006-21-0904-698 (예금주:이인섭)

서암(前조계종 종정)큰스님 법회
·일시: 1999. 6. 27 (일) 오전 10시
·장소: 경주 남산 용문사

경주온천관광호텔 서울사무소
KYONGJU SPA HOTEL

세계를 한 빛깔 전리의 법 깃발 아래에

· 불교 지도자들의 필독서 ·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과 불교

고독스님 지음
시간과 공간사 Tel.3272-4546

이 인간의 책으로 3천년 서양철학은 불교에 화합하였다.
미래철학으로 주목받는 유기체 철학을 불교이론과 사상으로 명쾌하게 해설한 조유익의 저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케임브릿지대, 런던대 수학물리학 교수, 하버드대 철학교수를 지낸 20세기의 대표적 과학 철학자. 20세기는 수학과 철학의 분야에서 화이트헤드를 능가할 인물을 낳지 못했다고 평가될 만큼 그는 급세기 최고의 철학자.

세계적 석학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허드트리드 -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이래 과학과 철학을 결합시킨 가장 중요한 책을 저술한 대 철학자’
- 존듀이 - ‘철학에 혁명적 공헌을 했다’
- 찰스·레이브 - ‘이제부터 해명되어야 할 미래의 철학자’
- 레오 웨츠 - ‘모든 문제를 새로운 형태로 담고 있는 유일한 철학자’